11세기 吏讀資料로 본 符點口訣의 기입 시기

李丞宰*

要約

이 글은 여러 佛經 자료에 符點을 기입해 넣은 시기를 추정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瑜伽師地論』 卷第5, 8은 初雕大藏經의 일종이므로 11세기 전반기에, 周本 『華嚴經』 卷第6, 22, 31, 34, 36, 57 등은 11세기 말엽이나 12세기 초엽에, 晉本 『華嚴經』 卷第20은 10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해 왔다.[1] 그런데 이들 불경의 刊行 時期와 여기에 符點 口訣을 記入한 時期는 서로 다를 수 있다. 符點을 언제 記入하였는지를 알려주는 識記가 전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吏讀는 文書 作成 당시의 언어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言語 形式의 사용 시기를 추정할 때에 가장 유용한 자료가 된다. 특히 11세기 이두 자료에는 부점 구결의 언어형식과 동일한 것이 적지 않다. 이 동일 언어 형식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부점 구결의 기입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두와 구결 자료를 對比한 결과, 불경의 간행 시기와 여기에 부점을 기입한 시기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晉本 『華嚴經』 卷第20에는 10세기의 언어가, 『瑜伽師地論』 卷第5, 8에는 11세기 전반기의 언어가, 周本 『華嚴經』 卷第6, 22, 31, 34, 36, 57에는 11세기 말엽이나 12세기 초엽의 언어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1) 南豊鉉(1996)과 南權熙(1997)을 참고하기 바란다.

*핵심어: 이두, 구결, 화엄경, 유가사지론, 부점 구결, 문자 구결, 석독 구결, 시기 추정

1. 머리말

문자 석독구결 자료 중에서 가장 시기가 오래 된 것은 11세기 말엽에 간행된 『화엄경소』 권제35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로 발견된 符點 석독구결 자료 중에는 11세기에 간행된 것이 적지 않다. 『瑜伽師地論』 권제3, 5, 8은 初彫大藏經의 일종이므로 늦어도 11세기 중엽에, 周本 『華嚴經』 권제6, 22, 31, 34, 36, 57 등은 11세기 말엽이나 12세기 초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2)]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에 이들 자료에 구결이 기입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경전의 간행 시기와 경전에 구결을 기입한 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다. 11세기에 간행된 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기입된 구결이 반드시 11세기에 기입되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일본의 훈점 자료에서는 奧記에 훈점을 기입한 시기와 기입자 이름을 기록해 놓은 예가 적지 않지만 한국의 석독구결 자료 중에는 識記가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석독구결의 기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엄격히 말하면 이들을 국어사 기술에 이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석독구결을 언제 기입한 것인지를 추정하는 일은 필수적인 연구 주제인데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吏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구결의 기입 시기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이두 자료는 새로 작성한 문서일 때가 많으므로 "이두는 문서 작성 당시의 언어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두가 가지는 가치 중에

2) 문자 구결 자료는 『화엄경』처럼 한글로 표기하고, 符點 口訣 자료는 『華嚴經』처럼 漢字로 表記하여 혼동을 피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물론 14세기 이후에는 이두가 투식화하고 보수화하므로 이 시기의 이두 자료는 절대 시기를 논의하는 데에 부적절하지만 11세기의 이두는 보수화하기 이전의 성숙기 이두이므로[3] 구결 자료의 시기를 추정할 때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문제가 되는 符點 석독구결 자료는 바로 11세기에 간행된 것이 많으므로 11세기 또는 그 이전의 吏讀 자료는 부점 석독구결의 절대 시기 추정에 핵심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1세기의 이두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31년에 작성된 「淨兜寺形止記」와 1024년에 작성된 「无垢淨光塔重修記」, 1038년에 작성된 「西石塔重修形止記」와 「布施名公衆僧小名記」이다. 「淨兜寺形止記」는 일찍부터 논의되어 온 자료이고 나머지 셋은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이두 문서로서 노명호·이승재(2009)에서 일단 해독이 끝난 자료이다. 논의의 출발에 앞서 정확한 판독과 해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들 자료는 판독과 해독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진 문서에 속한다.

창작문의 일종인 이두문과 번역문의 일종인 구결문을 상호 대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文體와 表記法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시기의 추정을 도와주는 언어 형식이 없을 수는 없다. 이두든 구결이든 한국어의 언어 형식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글에서는 부점 석독구결 자료와 11세기의 이두 자료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언어 형식을 찾아내어 그 특징과 가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들이 부점의 기입 시기를 추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논거가 되기 때문이다.

---

3) 필자는 이두의 시대구분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7세기 말엽까지를 發芽期, 8세기 초엽에서 10세기 초엽까지를 成長期, 10세기 초엽에서 13세기 말엽까지를 成熟期, 14세기 초엽 이후를 衰退期로 본다.

2. 이두와 구결의 비교 방법론 모색

음운론의 관점에서 이두와 구결을 비교하는 일은 쉽지 않다. 둘 다 형태 위주의 표기법이기 때문에 음소 차원의 異同을 따지기가 사실은 어렵다. 음소 표기의 예로 末音添記字를 들 수 있으나 말음첨기자도 사실은 형태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표기 대상이 어휘 형태이든 문법 형태이든 관계없이, 이두와 구결은 형태를 대상으로 하는 표기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음운론적 관점에서 이두와 구결을 비교하는 것은 논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어휘론의 관점에서는 특정 어휘 형태의 생존 기간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같-'(如)의 의미를 가지는 '다ᄒᆞ-'(如)는 문자 석독구결 시기까지 즉 13세기 말엽까지 쓰인다. 부점 석독구결 자료를 포함하면 '다ᄒᆞ-' 형태의 사용 시기는 10세기에서 13세기 말엽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다ᄒᆞ-'가 이두 자료에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시기의 상한과 하한이 확인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부점 석독구결의 기입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두와 구결에서 사용 시기가 일정하게 한정되는 어휘 형태가 상호 비교의 주요 대상이 된다.

그러나 비교가 가능한 어휘 형태는 사실은 많지 않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두루 쓰이는 어휘 형태는 이두와 구결의 시기적 선후를 논의할 때에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쪽에서는 사용된 적이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용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것이 우연의 소치일 수도 있고 문체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使內-'로 표기되는 '브리-'나 '在-'로 표기되는 '겨-' 등의 어휘 형태는 이두에서는 일찍부터 사용되었으나 구결에서는 좀처럼 그 예를 찾기가 어렵다.[4] 이처럼 어휘 형태가 가지는 우연성과 개

4) 동사어간 '겨-'에 존경법의 '-시-'가 융합된 '겨시-'는 이두와 구결에서 모두 나타난다. 그러나 '-시-'가 융합되지 않은 '겨-'는 이두에서만 쓰인다. 이두의

별성 탓으로, 또는 문체상의 차이 탓으로 체계적 비교가 쉽지 않은 때가 많다.

어휘 형태에 비하여 문법 형태는 그 용례가 훨씬 많으므로 체계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개별적인 문법 형태만을 기준으로 이두와 구결을 바로 비교하면 의외의 난관에 부딪친다. 예컨대, 이두에서는 주제 보조사의 일종인 '-矣段', 시상의 선어말어미 '-如', '-도록, -게끔'의 의미를 가지는 어미 '-於爲' 등이 두루 쓰였으나 이에 대응할 형태를 구결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석독구결에서는 주제 보조사 '-ㄱ'과 應當의 의미를 가지는 선어말어미 '-ㅎㄴ-'가 생산적으로 쓰이지만 이두 자료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문법 형태를 一對一로 대응시킬 때에 이두와 구결의 相違性이 두드러진다.

이두와 구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법 형태이지만 그 의미 기능이 서로 다를 때도 있다. 예컨대 석독구결 자료의 '-ㅣ+'는 형태상으로 이두의 '-如中'에 대응한다. 문자 석독구결 자료인 『화엄경소』 권제35에서는 이 '-ㅣ+'가 두 가지 의미 기능을 갖는다. 첫째는 '-는데, -을 적에' 정도의 의미이고, 둘째는 '-을 것 같으면, -한다면' 정도의 조건·가정의 의미이다. 그런데 이두에서 전자의 용법은 1031년 자료인 「淨兜寺形止記」에 처음 나오고,[5] 후자의 용법은 1262년 자료인 「尙書都官貼」에 처음 등장한다.[6] 이처럼 외관상으로는 동일한 형태이지만 용법에서 차이가 나는 예들은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문법 형태가 앞뒤로 직접 통합되는 연결체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방

'겨-'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결에서는 '有ㅌㅏ-'로 표기되는 '잇겨-'가 주로 쓰인다. 이곳의 '-ㅏ-'는 李丞宰(1996)에 따르면 동사어간이 아니라 존경법 선어말어미의 일종이다.

5) '准受 令是遣 在如中'의 '-如中'이 그 예이다.

6) '直子 無在如中'의 '-如中'이 그 예이다.

법도 있다. 예컨대 어미류의 경우에는 선어말어미의 연결체를 기준으로 이두와 구결을 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에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이 사실은 많지 않다. 문자 구결에서는 독특하게도 '-去ハニ-, -ミハニ-, -ヒハニ-, -ロハニ-'와 '-ミナヰ-' 등의 선어말어미 연결체가 나오지만 이에 대응하는 것을 이두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구결의 '-ニト-'에 대응하는 이두의 '-賜臥-'를 941년 자료인 慈寂禪師碑陰의 '爲賜臥亦之'에서 찾을 수 있지만, 시기 추정의 대상인 符點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ニト-' 또는 '-ゐト-'의 예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 글은 부점의 기입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부점 석독구결 자료에 나오지 않는 어미 통합체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두와 구결 자료에서 두루 확인되는 선어말어미 연결체의 한 예로서 '-去在- : -去ナ-'의 대응을 들 수 있다. '-去在-'는 「淨兜寺形止記」의 '爲去在乙'에 한 번 나오고, '-去ナ-'는 『화엄경소』 권제35와 『화엄경』 권제14에 여러 번 나온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부점 자료의 일종인 周本 『華嚴經』 권제34에서 두루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대응은 부점의 기입 시기를 추정할 때에 반드시 거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사론적 구조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한문의 否定文은 석독구결에서 일정한 통사구조로 번역된다. 동사류에 부정 보문자 '-尸, -ㄱ'을 통합한 다음 각각 그 뒤에 부정사 '不多, 不矣'가 오는 구조를 주로 이용한다. 그런데 이두에서는 이 보문자 '-尸, -隱'이 사용된 적이 없다. 따라서 부정문의 통사구조는 유감스럽게도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사구조를 이용하는 비교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예컨대 한문의 '隨其所應'에 대응하는 자료가 이두 자료, 문자 및 부점 석독구결 자료에서 두루 확인된다. 한편, '-가 되-'의 의미를 가지는 한문의 '爲NP'가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독특하게도 'NP ㅣ尸入乙{爲}ン-'로 나타나는데, 이 통사구조가 부점 구결 자료에

서뿐만 아니라 이두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부점의 기입 시기를 추정할 때에 중요한 논거가 된다.

3. 이두의 ‘ 如- ’와 구결의 ‘ 如ᄉᆞ- ’

문자 석독구결 자료에서 ‘如’가 상태동사 어간 ‘같-’의 뜻으로 쓰일 때에, 『화엄경소』와 『화엄경』, 『금광명경』, 『유가사지론』에서는 구결자 ‘ᄉᆞ(ㅅ)-’가 부가되고, 『구역인왕경』에서는 ‘ㅣ(ㅅ)-’가 부가된다. 표기에 차이가 있지만 둘 다 ‘다(ᄒᆞ)-’로 읽는다. 부점 자료에서도 ‘如’에 ‘ᄉᆞㅅ-’가 부가된 예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周本 『華嚴經』 권제31, 晉本 『華嚴經』 권제20, 『瑜伽師地論』 권제5의 예를 각각 하나씩만 들기로 한다.[7] 앞의 두 자료에서는 ‘ᄉᆞ’가 24(·)으로 표기되었고, 『瑜伽師地論』 권제5에서는 11(·)으로 표기되었다.

(1) 부점 구결의 ‘如ᄉᆞㅅ-’

가. A: 如是[24(·),12(:)]諸[33(·)]法[33(·)] <周本華嚴31, 07:22-23>
C: 是 如ᄉᆞㅅㄱ 諸ㄱ 法ㄱ

나. A: 入深[33(·)?]法界[35(/)] 皆如虛空[24(·), 12(:),53(·.),11(/)] 而[33(·)] <晉本華嚴20, 17:13-14>
C: 深ㄱ 法界ㅣ 皆 虛空 如ᄉᆞㅅㄱㄹ十 入x ᄉᆞ 而ㄱ

다. A: 不如是[11(·),33(/),55(·)?] <瑜伽05, 04:14-17>
C: 是 如ᄉᆞㅅㄱ 不(矣)ᄉᆞ

문자 구결 자료인 『화엄경소』 권제35는 11세기 말엽이나 12세기 초

7) 부점 구결 자료의 제시 방법은 李丞宰 外(2005)의 방법을 따르기로 하되 필자의 관점에 따라 일부 수정한 것도 있다. 이하 같다.

엽에, 『화엄경』 권제14는 12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입된 문자 구결을 이용하여 周本 『華嚴經』 권제6, 22, 31, 34, 36, 57 등에 기입된 부점 석독구결을 해독하는 데에는 시기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周本 『華嚴經』 계통의 부점 자료가 11세기 말엽에서 12세기 초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문자 자료와 부점 자료 사이에 간행 시차가 거의 없다. 두 자료가 다 동시대의 언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자 구결을 이용하여 (1가)의 부점 구결을 해독하더라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런데 부점 자료인 晉本 『華嚴經』 권제20을 해독할 때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 자료는 卷首題를 쓰는 방식 등이 唐 寫經에서 볼 수 있는 古本의 형식이고 紙質도 여섯 권의 周本 『華嚴經』에 비하여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감안하여 그 간행 시기를 10세기 정도로 추정해 왔다. 이 추정에 따르면 이 자료의 부점이 10세기에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11세기 말엽 이후의 문자 구결을 이용하여 10세기에 기입된 부점 구결을 해독할 수 있을까? 적어도 100년 정도의 시차가 난다면 그 사이에 통시적 언어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무시해도 되는가? 『瑜伽師地論』의 경우에는 이 시차가 더 커진다. 13세기 후반기에 간행된 『유가사지론』 권제20의 문자 구결을 이용하여 11세기 전반기에 간행된 『瑜伽師地論』 권제 3, 5, 8의 부점 구결을 해독해도 되는가? 그 시차가 250년 정도나 되는데, 그 사이에 통시적 언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려면 11세기 전반기 자료 또는 그 이전의 자료에서 '如支(ㄴ)-'의 용례를 찾아내야 한다. 後代의 자료를 이용하여 先代의 자료를 해독할 때에는 이러한 예를 찾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충분조건까지는 충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필요조건만은 반드시 갖추어야만 해독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필요조건을 갖추려면 이른 시기의 이두 자료를 두루 활용하는 방

법밖에 없다. 문서 작성의 절대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두 자료는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된다. 다행히 이두 자료에서도 '如'가 상태동사 어간 '다(ᄒᆞ)-'를 표기한 예가 나온다.

(2) 이두의 '如-'
西邊 石塔亦 傾墮 如加賜乙 (서석탑 7행)
(西邊의 石塔이 기울어 무너질 것 같으시거늘)

(2)의 '如加賜乙'는 '如(동사어간, 다-) + 加(시상 선어말어미, -더-) + 賜(존경법 선어말어미, -시-) + 乙(연결어미, -을/늘)'로 분석되고, '다(ᄒᆞ)더시늘' 정도로 읽힌다. 문맥으로는 지진이 나서 서쪽의 석탑이 기울어져 무너질 것 같기에, 운수해 온 잡목으로 탑을 버텨 놓았다는 내용이다. '(무너질 것) 같-' 동사가 이 상황에서는 가장 잘 어울린다. 따라서 이곳의 '如'가 '같-'의 의미를 가지는 상태동사 어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2)의 예는 1038년에 작성된 「西石塔重修形止記」에 나오므로, 이 예는 늦어도 1038년경에는 이미 상태동사 어간 '다(ᄒᆞ)-'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해 준다.

이두 자료에서 '如'가 상태동사 어간을 표기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如'는 대부분 시상법 선어말어미 '-더-'를 표기하는 데에 쓰인다. 그 밖에 부사의 용법으로 쓰인 '如'의 예가 몇 개 나오는데, '右如'와 '右之'의 '如'가 이 용법에 속한다. '위와 같이' 또는 '이와 같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右如'는 1031년 자료인 「淨兜寺形止記」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長城監務官貼文」, 『大明律直解』에서도 쓰인 바 있다. 이 '右如'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右之'는 「西石塔重修形止記」와 1024년 자료인 「无垢淨光塔重修記」에서만 쓰였다.

(3) 이두의 '右如'

가. 右如 付量 有在等以 <淨兜寺形止記 24행>
(위와 같이 付量이 있으시므로)

나. 右如 隨願爲在乎 事亦 在 <淨兜寺形止記 49행>
(위와 같이 願을 따르신 일이 있음)

(4) 이두의 '右之'

가. 右之 安藏爲白 (置)[在](敎)弥 <无垢淨光塔重修記 16-17행>
(앞과 같이 안치하여 갈무리해 두시며)

나. 右之 安爲白 置在敎ヶ <西石塔重修形止記 31행>
(앞과 같이 안치하여 두시며)

'右如'와 '右之'의 관계에 대해서는 표기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右如'의 '如'는 南豊鉉(1981)의 訓借字인 데에 비하여 '右之'의 '之'는 訓假字에 해당한다. 前者는 '如'의 訓 '다(ᄒᆞ)-'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後者는 종결사 '다'의 표기에 '之'를 이용해 온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 전통에 따라 '다(ᄒᆞ)-'를 표기할 때에 (2)의 '如(爲)-'가 다음의 '之爲-'로 바뀌기도 한다.

(5) 이두의 '之爲-'

右之爲 形止以 使內乎 事[是] (在) (无垢淨光塔重修記 99행)
(앞과 같이 하여 形止를 (쓰도록) 한 일이 있음)

위의 여러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상태동사 어간 '다(ᄒᆞ)-'와 관련된 자료는 11세기 전반기 자료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그렇다면 초조대장경의 일종인 『瑜伽師地論』 권제3, 5, 8에 기입된 符點 중에서 '如ᄉᆞ(ㆍ)-'와 관련된 것들은 11세기 전반기의 언어에 대응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초조대장경이 간행된 시기가 11세기 전반기일 뿐만 아니라 어간 '다(ᄒᆞ)-'와 관련된 표기가 11세기 전반기의 이두 자

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ᄒᆞ-'로 읽힐 '如爲-'가 「永川菁堤碑其二」(798년)에 이미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6) 이두의 '如爲-'

臥(?)長卅五步 岸立弘至深六步三尺 上排掘里十二步 此 如(始?)爲 二月十二日 元 四月十三日 此 間中 了治內之 <永川菁堤碑其二 3-6>

(평면 길이는 35보, 언덕 세운 곳의 깊이는 6보 3자, 上排掘里 12보, 이와 같이, 2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이 사이에 (공사를) 마치었다)

이곳의 '此 如爲'는 '此 始爲'으로 판독되기도 하는데, 문맥을 검토해 보면 '此 如爲'가 바람직하다. '此 如爲'는 '이와 같이' 정도의 의미이다. 이 앞에는 공사한 둑의 길이가 기술되고, 그 뒤에는 공사한 기간이 나온다. 앞에 열거된 여러 가지 길이를 아우를 때에는 '此 如爲'가 '此 始爲'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여러 가지를 열거한 다음 이들을 '此 如ᄉᆞ(ㅅ)-'로 아우르는 예가 구결 자료에서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에, '此 始爲'로 판독하면 '이를 시작하여'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뒤에 오는 '2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이 사이에'와 상충된다. 따라서 '此 如爲'를 택하기로 한다.

'此 如爲'의 '如爲'가 '다(ᄒᆞ)-' 동사를 표기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永川菁堤碑其二」는 798년에 세워졌으므로 '다(ᄒᆞ)-' 동사는 8세기 말엽에 이미 사용되었다. 이두 자료 전체를 통틀어 말하면 어간 '다(ᄒᆞ)-'가 사용된 시기는 8세기 말엽에서 11세기 전반기까지이다. 여기에서 11세기 전반기가 '다(ᄒᆞ)-' 사용 시기의 下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晉本『華嚴經』권제20에 기입된 '如ᄎ(ㅅ)-'가 바로 10세기의 언어 형식일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일반화하여 晉本『華嚴經』권제20에 10세기의 언어가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瑜伽師地論』권제3, 5, 8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초조대장경의『瑜伽師地論』은 11세기 전반기에 간행되었는데, 여기에 기입된 符點은 바로 이 시기의 언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4. 이두의 ' 在教- '와 구결의 ' ナゐ- '

15세기의 존재동사 '겨시-'는 일찍부터 주목의 대상이었다. 형태론적 구성이 어간 '겨-'에 존경법 선어말어미 '-시-'가 융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겨시-'가 문자 구결에서 'ナゐ-'로 표기된 예가 나온다.[8] 다음 예의 'ナゐ下'의 주어는 如來와 佛이므로 존경법 체계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7) 문자 구결의 'ナゐ-'
가. 過去ㅋ十 幾ヒアヒ 如來・ 有ナゐ下 般涅槃ンゐカ
<화소 35,7: 16-17>
나. 現在ㅋ十ㄱ 幾ヒアヒ 佛ム・ 有ナゐ下 住ンゐカ <화소 35,7: 18-19>

그런데 이두 자료에서도 존재동사 '겨시-'에 해당하는 예가 눈에 띈다.

(8) 이두의 '在教-'
가. 仰蓮臺花蕊筒柱ㅋ中(藏)_[舍](利)爲白 置在教如乙 <无垢淨

8)『유가사지론』에는 '겨시-'의 예가 나오지 않는다.『구역인왕경』과『금광명경』에서는 독특하게도 'ナハニ-'로 표기되었다.
化佛ㅐ 有ナハニカ 〈구인 2: 3〉
大自在梵王ㄱ 於大會ヒ 中ㅋ十ン ナハニコ ㅗ 〈금광 13: 18〉

光塔重修記 11-12행>
(仰蓮臺 花蕊 筒柱에 舍利를 갈무리해 두셨던 것을)
나. 右之 安藏爲白 (置)[在](敎)弥 <无垢淨光塔重修記 17행>
(위와 같이 安藏하여 두시며)
다. 右之 安爲白 置在敎ᄉᆞ <西石塔重修形止記 31행>
(위와 같이 안치하여 두시며)

(9) 이두의 '-如賜-'
가. 太平二年丁丑七月二十九日 古石佛 在如賜乙 重脩爲 今上 皇帝萬歲願 <校里磨崖>
(太平 2년 丁丑 7월 29일, 옛 石佛 계시던 것을 重脩하여 현 皇帝의 萬歲를 願함)
나. 惡▣ [無|亦] 在如賜亦 <西石塔重修形止記 05행>
(惡▣ 없이 계시었으나)

(8다)의 '置在敎ᄉᆞ'는 '두 # 겨시+며' 정도로 분석된다. 15세기의 복합동사 '뒷-'은 '두-'(置) 어간과 '잇-'(有) 어간이 독특하게 통합된 것인데, '두겨시-'도 '두-' 어간과 '겨시-' 어간이 독특하게 통합된 것이다. 이 '두겨시-'에 해당하는 어간이 '置在敎ᄉᆞ'의 '置在敎-'이다. '置-'를 분석해 내고 남은 '在敎-'가 바로 15세기의 '겨시-'에 해당한다.

'在敎-'의 '-敎-'가 '-賜-'와 거의 같은 문법적 기능 즉 존경법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가진다(李丞宰 2008). 존재동사 어간 '在-'에 존경법 선어말어미 '-賜-'가 직접 통합된 '*在賜-'는 보이지 않고 '-敎-'가 통합된 '在敎-'만 눈에 띈다는 점이 특이하다. '在-'에 다른 선어말어미가 먼저 통합된 다음에 존경법 선어말어미가 통합될 때에는 (9)의 '在如賜乙, 在如賜亦'에서처럼 '-賜-'가 통합된다. 그런데 (8가)의 '在敎如乙'과 (9)의 '在如賜乙, 在如賜亦'를 대비해 보면 흥미로운 것이 관찰된다. (8가)에서는 존경법 선어말어미가 어간에 직접 통합되었지만 (9)에서는 직접 통합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겨시더늘'과 '겨더시

늘'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동사 '겨-'와 존경법 선어말 어미 '-시-'가 융합하여 새로운 존재동사 '겨시-'가 출현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1세기 전반기는 존재동사 어간 '겨-'에 '-시-'가 통합된 '겨-시-'와 이 두 형태가 하나의 어휘 형태로 굳어진 '겨시-'가 공존했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李丞宰 2008).

'在敎-'의 예는 1024년에 작성된 「无垢淨光塔重修記」와 1038년에 작성된 「西石塔重修形止記」에 나오므로 늦어도 이 시기에는 새로운 존재동사 어간 '겨시-'가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절대 시기를 강조한다면 『瑜伽師地論』 권제3, 5, 8에 '겨시-'가 점토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불행하게도 이 '겨시-'가 점토로 표기된 예가 『瑜伽師地論』 권제5, 8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역시 우연한 공백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부점 구결 자료인 周本 『華嚴經』 권제34에는 '겨시-'의 예가 나온다. 점토 43(-)이 '-ㅱ下'에 대응하는데, 그 중에서 '在'나 '有'에 통합된 것들이 이에 속한다. 이때의 '在ㅱ下'나 '有ㅱ下'는 주어가 각각 世尊과 佛이므로 '겨시하'를 표기한 것이 분명하다.

(10) 부점 구결의 '在ㅱ-'

가. A: 爾時[53(·)]世尊[33(·)]在 … 摩尼寶藏殿[53(/)?#53(·)?,43(-)] <周本華嚴34, 01:04-05>

C: 爾 時十 世尊ㄱ … 摩尼寶藏殿x十 在ㅱ下

나. A: 各有 … 諸[33(·)]佛[35(·),43(-)] <周本華嚴34, 02:18-20>

C: 各 … 諸ㄱ 佛ㄴ 有(ナ)ㅱ下

문제는 晉本 『華嚴經』 권제20의 경우이다. 여기에서도 『瑜伽師地論』 권제5, 8과 마찬가지로 존재동사 '겨시-'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자료에 '겨시-'를 표기한 점토가 나오지 않는 것은

한문 원문에 그 원인이 있다. 이들 자료의 한문 원문을 검색해 보면, '在'나 '有'가 존재동사이고 그 주어가 世尊이나 佛인 예가 아예 없다. '겨시-'를 표기하는 점토가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瑜伽師地論』 권제5, 8에서 '겨시-'에 해당하는 점토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연한 공백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晉本 『華嚴經』 권제20에서도 '겨시-'에 해당하는 점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연히 쓰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瑜伽師地論』 권제3, 5, 8 등은 「无垢淨光塔重修記」 및 「西石塔重修形止記」 등의 이두 자료와 時差가 없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晉本 『華嚴經』 권제20의 경우에는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자료와 이두 자료의 시차가 약간은 나기 때문이다.

5. 이두의 ' -去在- '와 구결의 ' -ㅿㅏ- '

문자 석독구결에서는 '-ㅿㅏ-'가 자주 등장한다. '-ㅿ-'는 확인법 선어말어미 또는 시상법 선어말어미로 불리고, '-ㅏ-'의 문법범주는 존경법 선어말어미, 시상법 선어말어미, 조동사 등으로 기술되어 왔다.[9] 이 '-ㅿㅏ-'는 『화엄경소』 권제35와 『화엄경』 권제14에만 나오고 나머지 문자 구결 자료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이것은 '-ㅿㅏ-'가 이른 시기의 선어말어미 연결체임을 암시한다.

9) 口訣學會 월례강독회(2011년 4-6월)를 통하여 박진호 교수는 구결의 선어말어미 '-ㅏ-'가 양태 범주에 속하고 '가능'의 의미를 가진다는 新說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이두의 '-在-'를 두루 포괄하지 못한다. 이 글에서 거론한 이두 자료 (3), (12), (15)에 마침 선어말어미 '-在-'가 나오는데, 이들은 '가능'의 의미가 아니다. 葛項寺石塔記의 '-在-'도 마찬가지이다.

(11) 문자 구결의 '-去ナ-'

가. 此ㄲ 藏ㅋ 十 住ㄴ去ナㄷㄴ 者ㅎㄱ <화소35, 20: 4-5>

나. 諸ㄱ 天ㅅ 世人ㅅㄴㅋ 能ᄉᆞ 知ㅋ 令 莫去ナㅎㄴㅣ <화엄14, 14 : 7-8>

그런데 이 선어말어미 연결체가 「淨兜寺形止記」에도 나온다. 아래의 예문은 光賢이 석탑 세우기를 발원하였으나 身病으로 마치지 못한 채 돌아갔음을 서술한 문장이다. 佛事의 發願者는 높임의 대상이 될 때가 많으므로 '遷世爲去在乙'을 '돌아가셨으니'로 풀이하였다.

(12) 이두의 '-去在-'

郡百姓 光賢亦 … 身病以 遷世爲去在乙 <淨兜寺形止記 3-8행>

(郡 百姓 光賢이 … 身病으로 돌아가셨으니)

이 예의 '爲去在乙'은 '-去在-'가 늦어도 1031년에는 사용되었음을 증명해 준다. 부점 구결 자료에서도 '-去ナ-' 연결체가 사용되었다. 24(/)로써 '去'를, 12(-)로써 'ナㄱ'을 표기한 예에 나온다. 이처럼 두 개의 점토로 나뉘어 표기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去-'와 '-ナ-'가 별개의 형태임을 뜻한다.

(13) 부점 구결의 '-去ナ-'

가. A: 佛子[34(|)]菩薩[24(|)]住此歡喜地[53(·),24(/),12(-),33(·)]
(周本華嚴34, 09: 15-16)

C: 佛子ㅋ 菩薩ㅢ 此 歡喜地十 住(ㄴ)去ナㄱㄱ

나. A: 是菩薩[33(·)?] … 勤行精進[32(-),24(/),12(-), 53(··),33(·)]
(周本華嚴34, 18: 12-13)

C: 是 菩薩ㄱ … 勤行 精進(ㄴ){欲}ㅅ (ㄴ)去ナㄱㅣ十ㄱ

위의 이두 자료와 문자 및 부점 구결 자료 중에서 가장 시기가 이른 것은 1031년의 「淨兜寺形止記」이다. 이 이두 자료는 『瑜伽師地論』 권제3, 5, 8 등의 부점 자료에서도 '-ㅿㅏ-'이 쓰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瑜伽師地論』 부점 자료에는 정작 '-ㅿㅏ-'가 나오지 않는다. 역시 우연한 공백일까? 周本 『華嚴經』 계통의 자료에서만 이 '-ㅿㅏ-'가 발견되고, 晉本 『華嚴經』 권제20에서도 역시 이 예가 나오지 않는다.

6. 이두의 '應爲處 追于 '와 구결의 '應ㅅㄱ 所乙 隨ㅅ '

문자 구결에서는 삽입구의 일종인 '隨其所應'을 일정한 형식으로 풀어 읽는다. 그 예에 해당하는 것을 符點 구결 자료에서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14) 부점 구결의 '應ㅅㄱ 所乙 隨ㅅ'
가. A: 隨其所應[33(\),34(·),21(·)] <瑜伽05 10: 02-06>
C: 其 應ㅅㄱ 所乙 隨ㅅ
나. A: 隨其所應[33(\),34(·),21(·)] <瑜伽08 21: 12-13>
C: 其 應ㅅㄱ 所乙 隨ㅅ
다. A: 隨其所應[33(·),41(·),53(\.)] <晉本華嚴20, 13: 25-14: 01>
C: 其 應(ㅗㅅ)ㄱ 所乙 隨ㅎ
라. A: 隨其所應[33(·)?,41(·),24(\)] <周本華嚴57, 09: 04-05>
C: 其 應(ㅗㅅ)ㄱ 所乙 隨ㅎ

위의 (14가)와 (14나)의 예는 모두 "그 맞온 바를 좇오" 정도로 읽히는데, 표기에 이용된 구결자가 (14다)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 李丞宰外(2009가: 171)에서는 특히 (14다) C에서 A의 점토에는 없는

'ㅊㅅ'를 보충하여 읽었다. 『화엄경』 권제14에 나오는 '應ㅊㅅㄱ'을 근거로 보충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충은 사실은 위험할 때가 있다. 10세기 자료인 晉本 『華嚴經』 권제20에서는 점토의 표기대로 '應ㄱ' 즉 '맞은'이었는데 12세기 중엽의 자료인 『화엄경』 권제14에서 '應ㅊㅅㄱ' 즉 '맞온/맛혼?'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자료의 시차가 대략 200년 정도라고 한다면 이 通時的 變化의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행히도 이 문제에 참고가 될 만한 이두 자료가 하나 나온다.

(15) 이두의 '應爲 處 追于'

郡司 戶長別將柳瓊 … 書者承福等 … 牒以 寺代內 應爲 處 追于 立是白乎 味 了在乎亦 用良 <淨兜寺形止記 24-26행>
(郡司 戶長別將柳瓊 … 書者承福 등이 … 牒으로 절의 대지 안에서 마땅한 곳을 좇아 (탑을) 세우는 것을 허가하셨으므로)

이 예의 밑줄 친 '應爲 處 追于'는 통사론적 구성에서 (14)에 열거한 '應ㅅㄱ 所乙 隨ㅅ'와 거의 같다. 다만 '應'을 훈독해야 할지 음독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李丞宰(1995)에서는 '應'을 훈독하여 '맞-'으로 읽는 독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14가)와 (14나)의 '應ㅅㄱ'은 '맞온'으로, (14다) C의 '應ㄱ'은 '맞은'으로, (15)의 '應爲'는 '맞흔' 정도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淨兜寺形止記」가 1031년이라는 절대연도를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점이다. 이 이두 문서의 작성 시기는 『瑜伽師地論』 권제3, 5, 8 등의 간행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 「淨兜寺形止記」의 '應爲 處 追于'는 『瑜伽師地論』 권제5의 (14가) A와 권제8의 (14나) A가 11세기 전반기의 언어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이 이두 자료와 부점 구결 자료는 동일 시기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4다)의 晉本『華嚴經』권제20에 대해서는 함부로 장담하기가 어렵다. 이 자료는 문자 구결 자료보다 적어도 100년 이상 이른 시기에 간행되었고「淨兜寺形止記」의 작성 시기보다도 대략 수십 년 정도 앞선다. 삽입구 '隨其所應'에 대응하는 이두가 기록되었다는 점에서「淨兜寺形止記」는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이 이두 문서는 晉本『華嚴經』권제20에 10세기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을 열어 주기는 한다. 그러나 함부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7. 이두의 '-是等爲-'와 구결의 '-ㅣ尸入乙{爲}ㅅ-'

한문의 '爲NP'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해석된다. 'NP를 하-, NP를 위하-, NP로 삼-, NP가 되-'의 네 가지이다.[10] 이 중에서 'NP가 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문자 구결에서 계사 '-ㅣ-'를 이용한 'NP ㅣ尸入乙{爲}ㅅ-'로 표기된다. 이것은 석독구결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구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자 구결 자료를 두루 검토해 보면 '爲NP'의 앞에 NP가 하나 더 오는 통사구조도 많다. 이것을 'NP$_1$爲NP$_2$'로 표기하여 논항이 하나인 '爲NP$_1$'과 구별하기로 한다. '爲NP$_1$'은 'NP$_1$ㅣ尸入乙{爲}ㅅ-'로 번역되는 데에 비하여, 주어 뒤의 논항이 2개인 'NP$_1$爲NP$_2$'는 'NP$_1$ 乙 NP$_2$ {爲}ㅎ-'으로 번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곳의 '{爲}ㅎ-'을 '삼-' 동사로 새겨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NP$_1$乙 NP$_2$ {爲}ㅎ-'와 'NP$_1$ㅣ尸入乙{爲}ㅅ-'의 관계는 의미론적으로는 아주 가깝고 긴밀하지만 통사론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

10) '爲VP'의 경우에는 'VP하고자'의 의미로, 즉 'VPㅅㅅ' 또는 'VPㅅㄷㅓ'로 번역하는 때가 많다.

(16) 부점 구결의 'NP1乙 NP2 {爲}ᄒᆞ-'

A: 菩薩[24(|)] … 淨戒[41(·)]爲香[43(·),51(·)] <周本華嚴36, 13: 12-13>

C: 菩薩ㅣ … 淨戒乙 香 {爲}ᄒᆞᄉᆞᆷ

D: 菩薩이 … 淨戒를 香 삼으며 [菩薩(에게)는 … 淨戒가 香이 되며]

(17) 부점 구결의 'NP1ㅣ尸入乙{爲}ᄂᆞᆫ-'

A: 我[33(·)]當[23(:)]於一切衆生[25(·)]中[53(·)] 爲首[14(i),41(··), 52(·)] <周本華嚴36, 05: 07-08>

C: 我ㄱ 當ㅅ {於} 一切 衆生ㅌ 中ㅓ 首ㅣ尸{爲}入乙(ᄂᆞᆫ)ᄉᆞᆷ

(16)의 예를 보면, '菩薩이 淨戒를 香 삼으며'는 사실은 '菩薩(에게)는 淨戒가 香이 되며'와 거의 같은 뜻이다. 여기에서 'NP$_1$乙 NP$_2$ {爲}ᄒᆞ-'가 'NP$_1$ㅣ尸入乙{爲}ᄂᆞᆫ-'와 의미론적으로 서로 통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것을 중시하여 한문에서 둘 다 '爲NP'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통사론적으로는 'NP$_1$乙 NP$_2$ {爲}ᄒᆞ-'는 논항이 2개이지만, 'NP$_1$ㅣ尸入乙{爲}ᄂᆞᆫ-'는 1개라는 차이가 난다. 이 글에서는 주어 뒤에 논항이 하나만 오는 '爲NP$_1$'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爲NP$_1$'의 번역인 'NP$_1$ㅣ尸入乙{爲}ᄂᆞᆫ-'는 5종의 문자 구결 자료에 다 나오므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부점 자료인 晉本『華嚴經』권제20에서는 'ㅣ尸入乙'을 41(!) 하나로 표기한다(朴鎭浩 2006). 반면에, 周本『華嚴經』에서는 'ㅣ尸'을 14(!) 또는 14(i)로 표기하고 '入乙'을 41(· ·)로 표기한다. 즉 둘로 나누어 표기한다.

(18) 부점 구결의 '-ㅣ尸入乙{爲}ᄂᆞᆫ-'

가. A: 令一切衆生爲功德福田[41(!)] <晉本華嚴20, 02:23>

C: 一切 衆生(乙) 功德 福田ㅣ尸入乙{爲} 令(ㅣxᄉᆞᆷ)

나. A: 爲大法王[14(!),41(··),43(|)]如日[23(|)]普[24(|)]照[22(·)]

<周本華嚴22, 15: 18>

C: 大法王ㅣ尸入乙{爲}(ㄴ)ㅋ亦 日 如(ㅈ)ㄴㅋ 普ㅣ 照(ㅣ)ㅎ다.

다. A: 一切諸[33(·)]佛[35(·)]{45(·)} 之所攝取[14(ㅣ),14(!),41(··),52(·)] <周本華嚴31, 07:09>

C: 一切 諸ㄱ 佛ㄷ{之} 攝取(ㄴ)ㅎㅁ尸 所ㅣ尸入乙ㄴ分

라. A: 爲衆[25(·.)]上首[14(i),41(··)#41(·)#41(-·),23(ㅣ)] <周本華嚴34, 01:16-17>

C: 衆ㅋㅌ 上首ㅣ尸入乙{爲}ㄴㅋ

그런데 『瑜伽師地論』 권제5, 8에서는 '-ㅣ尸入乙{爲}ㄴ-'의 용례를 찾기가 어렵다. 오직 (19)의 예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자료에서는 45(/)과 21(.·)으로 '-ㅣ尸入乙{爲}ㄴ-'를 표기하였다. 李丞宰 外(2005: 301)에서는 45(/)을 '-x入乙'로, 21(.·)을 'X' 轉字하였으나 문맥을 고려하면 45(/)를 '-ㅣ尸入乙'로, 21(.·)을 'ㄴx'로 읽을 수 있다. 문자 구결 자료 『유가사지론』 권제20에 '-ㅣ尸入乙{爲}ㄴ-'가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 가능성은 커진다.

(19) 『瑜伽師地論』의 '-x入乙{爲}X'

A: 能[55(·)]爲鬪訟諍競[23(·)]之因[45(/),21(.·)]故[41(·)]名[54(·)] 有諍[53(·),+55(·.)] <유가08 07: 19- 20>

C: 能分 鬪訟 諍競ㅋ{之} 因x入乙{爲}X 故ㅗ 名下 有諍ㅗx分

그런데 이 '-ㅣ尸入乙{爲}ㄴ-'에 대응하는 구문이 1024년에 작성된 「无垢淨光塔重修記」에 쓰인 바 있어서 주목된다.

(20) 이두의 '-是等爲-'

가. 寺(依)[止] … ▣▣▣(是等▣當寺僧衆) … ▣令是白分 <(无垢淨光塔重修記 7-8행>)

(寺에 의지하는 (··)가 (▣▣▣)가 되어 當寺의 僧衆에게

… ▣ 하게 하오며)

나. 當寺邦彦僧(亦) □(匠)是等爲 使內亦 在 <无垢淨光塔重修記 46행>
(當寺의 邦彦僧이 □匠이 되어 부린 (일)이 있음)



「그림1」 是等爲, 「그림2」 爲

(20가)의 문맥은 결실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으나 "寺에 의지하는 (아무개)가 (책임자)가 되어 當寺의 僧衆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문맥이다. 여기에서 '-가 되어'에 해당하는 이두가 (20가)의 '是等▣'이다. ▣로 표기한 것은 글자의 왼쪽 부분만 남아 있어 그동안 읽지 못하였다(노명호·이승재 2009: 52).

그런데 '-가 되어'에 해당하는 구결이 '-ㅣ尸入乙{爲}ㄴ-'이므로 이것을 근거로 삼아 ▣가 '爲'가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1]의 끝 글자를 [그림 2]의 '爲'와 비교해 보면[11] 이 ▣가 '爲'임이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20가)의 '是等▣'를 '是等爲'로 수정할 수 있고, 이것이 구결의 '-ㅣ尸入乙{爲}ㄴ-'에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논의에 결정적인 논거가 되는 것은 (20나)의 이두문이다. 이것은 「无垢淨光塔重修記」의 말미에 열거된 공사 참여자 명단의 맨 끝에 나온다. 직역하면 "當寺의 邦彦 僧이 □匠이 되어 부린 일이 있다"는 뜻이다. 이곳의 '-이 되어'에 해당하는 이두가 역시 '-是等爲-'이다. 따라서 이두의 '-是等爲-'가 구결의 '-ㅣ尸入乙{爲}ㄴ-'에 대응한다는 것을 믿을 만하다.

여기에서 是가 ㅣ에, 等이 入乙에, 爲가 ㄴ에 각각 대응하는데, 구결의 尸에 대응하는 이두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것은 표기법의 문제이지 언어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두에서는 '-

11) 이 두 글자는 동일한 종이 조각 즉 53번 조각에 나온다.

읋'에 대응하는 동명사어미를 생략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 생략 현상을 감안하면 이 대응에는 무리가 없다.

지금까지는 『화엄경소』 권제35의 문자 구결에 쓰인 '-ㅣ尸入乙{爲}ㄴ-'가 '-이 되-'의 용법으로는 最古의 자료였다. 그러나 1024년에 작성된 「无垢淨光塔重修記」에서 '-是等爲-'의 용례를 찾아냄으로써 이 통사구조의 사용 시기를 훨씬 앞당기게 되었다.

이두 자료의 '-是等爲-'는 晉本 『華嚴經』 권제20에 '-ㅣ尸入乙{爲}ㄴ-'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열어준다. 실제로 이 부점 자료에는 (18가)에 제시한 것처럼 41(!)로 '-ㅣ尸入乙'을 표기한 예가 나온다. 이 (18가)를 周本 『華嚴經』 계통의 자료인 (18나-라)와 비교해 보면 표기에서 차이가 난다. 晉本 『華嚴經』에서는 '-ㅣ尸入乙'을 41(!)의 점토 하나로 표기했지만 周本 『華嚴經』에서는 14(!)(즉 'ㅣ尸')과 41(· ·)(즉 '入乙')의 둘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이 표기법의 차이가 晉本과 周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100년 이상의 時差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晉本 『華嚴經』 권제20의 표기법은 10세기의 표기법인데 비하여, 周本 『華嚴經』 계통은 11세기 말엽 이후의 표기법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晉本 『華嚴經』 권제20에 10세기의 언어와 그 표기법이 반영되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예상에 부합하는 자료를 이두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의 '是等'을 통하여 晉本 『華嚴經』 권제20의 부점 구결이 10세기에 기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1) 이두의 '-是等'

一切 皆 三惡道業 滅尒 自 毘盧遮那是等 覺 去世爲尒 誓內之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 造像銘>

(一切 모든 三惡道業을 그치기를, 스스로 毘盧遮那가 됨을 깨닫고서 죽기를 다짐한다)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造像銘」은 돌아간 豆溫愛郎의 願請을 이어 받기를 法勝과 法緣의 두 승려가 다짐하는 내용이다. 다짐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모든 三惡道業을 그치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毘盧遮那가 됨을 깨닫고서 죽는 것이다. 南豊鉉(2000: 308)에서는 (21)의 '毘盧遮那是等'을 '毘盧遮那인 것을'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毘盧遮那가 됨을'이나 '毘盧遮那가 되는 것임을'로 해석하여도 큰 잘못은 아니다. 계사 '-是-'는 '-이다'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가 되다'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21)의 '-是等'이 문자 구결의 '-ㅣ尸入乙'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毘盧遮那' 자리에 (즉 '爲NP_1'의 NP_1 자리에) 晉本『華嚴經』권제20에서는 調御師, 功德福田, 善知識之所攝護, 雄, 大王, 法王 등이 온다. 모두가 殊勝한 경지이거나 이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다. 따라서 (21)의 '自 毘盧遮那是等'을 '스스로가 毘盧遮那가 됨을(되는 것임을)'이라고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다. (21)의 '-是等'은 (20)의 '-是等爲'에서 '爲'가 생략된 것이다. 한문의 '爲NP' 구문에서는 '爲'가 필수적이지만, 한국어로 새로이 문장을 작성하는 상황에서는 '爲'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造像銘」은 766년에 작성되었으므로, 결국 '-是等(爲)'의 용례는 8세기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따르면 晉本『華嚴經』권제20에 부점 구결을 기입한 시기가 10세기라 하여도 어긋날 것이 없다. 吏讀 자료에서 '-가 되-'의 의미를 가지는 '-是等(爲)'가 766년에서 1024년에 걸치는 시기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1024년 이후의 이두 자료에서는 '-是等(爲)'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11세기 전반기가 오히려 '-是等(爲)'의 下限 시기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晉本『華嚴經』권제20에 나오는 '-ㅣ尸入乙(爲)ㄴ-'는 10세기의 언어를, 『瑜伽師地論』 권제8에 나오는 '-ㅣ尸入乙(爲)ㄴ-'는 11세기 전반기의 언어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8. 마무리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종합하여 도표화하면 (22)와 같다. 이 표에서 O로 표시한 것은 실증된다는 것을 뜻하고 X로 표시한 것은 실증적 예문이 없음을 뜻한다. 실증적 예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우연한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 표시하였다. 이두 자료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실증예의 절대연도를 바로 적어 넣었다.

(22) 종합 정리

자료 / 형태	문자 구결 자료		吏讀 자료	符點 구결 자료		
	유가 구인 금광	화소 35 화엄 14		周本 華嚴 6, 22, 31, 34, 36, 57	瑜伽 5, 8	晉本 華嚴 20
如ᄎ(ㇴ)- : 如(爲)	O	O	798 1024 1031 1038	O	O	O
ナ゛- : 在敎-	O	O	1024 1038	O	?	?
-去ナ- : -去在-	X	O	1031	O	?	?
應(ノ)ㄱ- : 應爲-	O	O	1031	O	O	O
-ㅣ尸入乙爲ㇴ- : -是等(爲)-	O	O	766 1024	O	O	O

이 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문자 석독구결 자료에서 발견되는 어휘 형태인 '如ᄎ(ㇴ)-'가 부점 석독구결 자료인 『瑜伽師地論』 권제5, 8과 晉本 『華嚴經』 권제20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어휘 형태에 대응하는 이두의 '如(爲)-'가 11세기 전반기의 이두 자

료뿐만 아니라 「永川菁堤碑其二」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두 자료에 따르면 사용 시기가 798년에서 1038년까지이다. 이 절대연도를 강조한다면 『瑜伽師地論』 권제5, 8은 11세기 전반기에, 晉本 『華嚴經』 권제20에는 10세기에 부점 구결이 기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 되-'의 의미를 가지면서 석독구결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ㅣ尸入乙(爲)ㄴ-'가 이두에서는 '-是等(爲)-'로 표기되었다. 이 이두의 상한 자료는 766년의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造像銘」이고 하한 자료는 1024년의 「无垢淨光塔重修記」이다. 따라서 '-ㅣ尸入乙(爲)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삽입구 '隨其所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동일하다. 11세기 이전의 이두 자료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통사구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晉本 『華嚴經』 권제20의 부점 구결이 10세기에 기입되었음을 확인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삽입구가 '如支(ㄴ)-'와 '-ㅣ尸入乙(爲)ㄴ-'의 부류에 속할 것으로 추측된다.

존재동사 어간 '겨시-'에 해당하는 형태가 문자 석독구결에서는 'ナ ゐ-'로, 이두에서는 '在敎-'로 표기된다. '在敎-'는 1024년의 「无垢淨光塔重修記」와 1038년의 「西石塔重修形止記」에 나오므로 『瑜伽師地論』 권제5, 8이나 晉本 『華嚴經』 권제20에도 이에 해당하는 점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연한 공백의 탓으로 실증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선어말어미의 연결체 '-去ナ-'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응하는 '-去在-'가 1031년의 「淨兜寺形止記」에 나오므로 위의 부점 구결 자료에서 이에 해당하는 점토가 나올 법하지만, 우연한 공백 탓으로 실증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在敎-'와 '-去在-'가 11세기 전반기의 이두 자료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을 중시하면, 11세기 전반기의 언어가 『瑜伽師地論』 권제3, 5, 8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晉本 『華嚴經』 권제20이다. '在敎-'와 '-去在-'의 예가 11세기 이전의 이두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晉本 『華嚴經』 권제20에

기입된 부점 구결이 10세기의 언어를 반영한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去在-'의 下限 시기가 11세기 전반기였을 가능성이 높고, 유난히 특징적인 點吐 對 字吐의 多對一 對應 현상이(朴鎭浩 2006) 목격되는 등 그 표기법이 후대의 부점 구결 자료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晉本『華嚴經』권제20에 10세기의 언어가 반영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 글에서 논거로 삼은 것은 사실은 많지 않은 편이다. 2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두와 구결이 현격한 차이를 보일 때가 더 많다. 그런데도 필자는 위와 같은 결론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麗末鮮初의 구결 자료를 검토하면서(李丞宰 1993) 책의 간행 시기와 구결의 기입 시기가 그리 멀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적이 있다. 책이 귀하던 시절에는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텍스트로 사용되었다고 하면 막연한 억측일까?

參考文獻

南權熙(1997),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147-194.

南豊鉉(1981),『借字表記法硏究』, 檀大出版部.

南豊鉉(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國語學』28, 國語學會, 1-48.

南豊鉉(2000),『吏讀硏究』, 태학사.

노명호・이승재(2009), 釋迦塔에서 나온 重修文書의 判讀 및 譯註,『重修文書』,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50-89.

朴鎭浩(2006), 晉本『華嚴經』卷第20의 點吐 解讀,『口訣硏究』16, 口訣學會, 173-208.

李丞宰(1993), 麗末鮮初의 口訣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安秉禧先生 回甲紀念論叢), 文學과 知性社, 56-76.
李丞宰(1995), 華嚴經 口訣의 狀態動詞 語幹, 『韓日語學論叢』(李鍾徹先生回甲紀念論叢), 國學資料院, 495-522.
李丞宰(1996),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 '-ㅅ(겨)-',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517-556.
李丞宰(2008), 墨書紙片의 語學的 意義,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재)불교문화재연구소, 37-57.
李丞宰 外(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 태학사.
李丞宰 外(2006가),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 태학사.
李丞宰 外(2006나),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 태학사.
李丞宰 外(2009가),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4』, 태학사.
李丞宰 外(2009나),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5』, 태학사.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E-mail: lsj@snu.ac.kr
접수일자: 2010.07.05
심사일자: 2010.07.26
게재결정: 2010.08.10

11世紀吏読資料から見た符点口訣の記入時期

李丞宰

この論文の目的はいくつかの仏教経典資料に符点が書き込まれた時期を推定することである。初雕大蔵経の一部である『瑜伽師地論』巻第五・巻第八は11世紀前半に、周本『華厳經』巻第六・二十二・三十一・三十四・三十六・五十七等は11世紀末や12世紀初に、晋本『華厳經』巻第二十は10世紀に刊行されたものと推定されている。ところでこれら経典の刊行時期と符点口訣の記入時期が同じだとは限らない。符点の記入時期を示す識記(奥記)が全く残っていないため、吏読資料を利用して符点口訣の記入時期を推定するしかない。吏読は文章作成当時の言語をそのまま反映するため、言語形式の使用時期を推定するときに最も有用な資料となる。11世紀もしくはそれ以前の吏読資料に現れる言語形式が符点口訣にも現れるのならそれは符点口訣の記入時期を決定する際に核心的な資料となる。検討した言語形式には使用時期が早期に限定される語彙形態、文法形態の統合関係、特に統語構造などが含まれる。これらを中心に吏読と口訣資料を対比した結果、経典の刊行時期と符点の記入時期がさほど離れていないという結論に達した。つまり、晋本『華厳經』巻第二十には10世紀の言語が、『瑜伽師地論』巻第五・巻第八には11世紀前半の言語が、周本『華厳經』巻第六・二十二・三十一・三十四・三十六・五十七には11世紀末や12世紀初の言語が反映されていると見てよいということである。

*キ-ワ-ド: 吏讀, 口訣, 華厳經, 瑜伽師地論, 符點口訣, 文字口訣, 釋讀口訣, 時期推定